

노씨세계종친회 정기총회 축하 서신

노씨세계종친회 제2차 정기총회가 득성지인 중국 장청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2003년과 올해, 저는 세계종친회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여주신 각별한 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성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씨 집안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교육에 힘써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3,200만 종친들은 조상의 은덕과 가르침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은 가문의 영광과 후손들의 더 큰 번영을 위해 매우 뜻있는 일입니다. 이번 총회가 종친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협력과 단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종친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후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계종친회의 큰 발전과 종친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4일

대통령 노무현